

전기소설의 죽음에 나타난 인연, 운명, 세계*

— <김현감호>, <최치원>을 중심으로 —

김 용 기

(중앙대학교 강사)

- I. 서론
- II. 열린 죽음에 의한 새로운 미래의 삶에 대한 가능성
- III. <김현감호>에 나타난 죽음과 새로운 미래의 삶
- IV. <최치원>에 나타난 ‘단힌 죽음과 解冤, 그리고 ‘열린 죽음’
- V. 전기소설의 삶과 죽음, 세계에 대한 이해
- VI. 결론

※ 이 글은 2016년도 온지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고전시대 죽음관과 죽음의식>(2016.11.5)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수정·가필한 것이다. 토론자였던 강우규 선생님의 의견과 당시 학회에 참여하였던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폭 수정하였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강우규 선생님과 학회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문 요약>

이 글은 전기소설의 죽음을 인연, 운명, 세계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글이다. 나말여초 전기소설인 <김현감호>, <최치원>을 토대로 하여 이들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이를 위한 전제로, 전기소설의 죽음을 ‘미래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체의 죽음이 타자를 살리기도 하고, 주체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기소설 속 주체의 죽음을 ‘열린 죽음’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현감호>에서는 호녀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천상적, 현실적, 개인적 층위의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해 호녀는 자신이 죽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김현과 세 오빠들을 살린다. 이런 점에서 호녀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죽음’이다.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죽음은 ‘열린 죽음’이라고 보았다.

<최치원>에서는 ‘쌍녀분’ 속 두 여귀가 현생에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죽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죽음은 ‘닫힌 죽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신들의 무덤에 作詩를 하는 최치원과 인연을 맺은 후 해원(解冤)을 한 결과 ‘열린 죽음’으로 질적 변환을 거치게 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전기소설에서는 ‘죽음’이나 ‘사후’의 이야기가 기이의 환상적 수법을 통해 강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이 현실적 삶의 소중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요 과정이라는 점이었다.

주제어: 전기소설, <김현감호>, <최치원>, 죽음, 해원.

I. 서론

우리는 ‘삶과 죽음’을 ‘生死’라는 한자로 표현하기도 한다. ‘生’자는 흙(土)에서 싹(屮)이 나오는 모양을 형상화한 상형자다. 字源 풀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生’은 ‘나다(낳다), 시작, 삶’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반해 ‘死’자는 흐트러진 뼈(歹)와 사람(匕-사람을 거꾸로 한 모양(人))의 합자로 이루어진 회의자다. 사람(匕-人)이 죽으면 살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나 흐트러(歹)지기에 ‘죽다’라는 뜻이 되었다. 이 字源 풀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死’는 ‘들어가다, 끝, 죽음’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일까? 일반인들에게 ‘삶과 죽음’은 자연현상의 양 극단처럼 인식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한 인간을 둘러싼 집단에게 축복과 재앙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고대나 중세에도 그러했을 수 있다. 하지만 고대와 중세시대 문학 속에서는 ‘삶과 죽음’을 축복과 재앙의 이분법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은 생명의 시작과 종말(始終)의 단순한 표현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佛家の ‘輪廻’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한자의 의미를 단순하게 풀이하면 ‘수레바퀴가 돌고 돈다’는 의미다. 비슷한 말로는,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의 ‘轉生’이라는 말도 있다. 거창한 부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풀이하지 하지 않더라도, ‘윤회’나 ‘전생’이란, 중생이 죽은 후에 그 업보에 따라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드러낸 말이라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生과 死’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태어)나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生’의 전체적인 의미와 ‘들어가고, 끝나고, 죽음을 의미하는 ‘死’의 의미 맥락을 연결해 보면, 삶과 죽음은 곧 ‘시작과 끝’의 반복적 순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적어도 고대와 중세까지는 통용되었다. 그래서 나말여초 전기소설 속에 나타난 ‘삶

과 죽음'은 인물의 삶이 '시작되어 '끝나는 일회적 작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한 측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작품들의 작가와 독자들은 삶과 죽음을 일회성이 아닌,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순환 작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성격을 '종말의 죽음'과 '열린 죽음'으로 각각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종말의 죽음'은 삶이 '끝난다', '닫힌다'는 의미의 '닫힌 죽음'이고, '열린 죽음'은 다음의 삶을 '생성한다', '전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나말여초 전기소설 속 죽음은 이러한 '열림과 닫힘'¹⁾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나말여초 전기소설에 나타난 죽음 중에서 새로운 삶을 잉태하거나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죽음, 해원의 죽음 등을 '열림의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을 통해 초기 전기문학에서 인간과 인간의 인연, 운명, 이 세계(삶, 이승)와 저 세계(죽음, 저승)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열린 죽음에 의한 새로운 미래의 삶에 대한 가능성

만일 한 인간 삶의 流轉에서 '죽음'이 '닫힌 죽음' 한 번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인간의 삶은 매우 폐쇄적이고도 한시적인 시공간 속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이 다음 삶을 준비하거나 잉태하는 죽음, 자신이 죽음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성의 죽음이 될 수 있는 '열린

1) 죽음을 각각 '열림의 죽음'과 '닫힘의 죽음'으로 상정하여 설명한 것은 김열규이다. 필자는 김열규의 이 개념을 원용하여 필자 나름대로 전기소설 속 죽음의 의미 규명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김열규는 웅녀의 의례적 죽음과 같이 미래가 있고 새로운 것이 있는 죽음을 '열린 죽음'이라고 하였고, 열린 죽음의 종언을 '닫힌 죽음'이라고 하고, 그 죽음은 된바람에 시달리는 촛불의 삭아짐과 다를 바 없는 찰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김열규, 「현대적 상황의 죽음 및 그 전통과의 연계」, 김열규 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 현실사, 2001, 52~53쪽.

죽음'일 수도 있다면, 혹은 그러한 순환적인 죽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무한한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여 맞이하게 된다. 전자가 유한성의 죽음, 비정상적인 죽음, 종말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무한성의 죽음, 정상적인 죽음, 始終의 연속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이 '닫힌 죽음'이고 어떤 죽음이 '열린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이 구분에는 좀 더 많은 설명과 이론적 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간단하게 적용을 하자면, 요절이나 비명횡사와 같이 비정상적인 죽음, 억울한 죽음은 '닫힌 죽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과 의례적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일상적, 정상적인 죽음은 통과 의례적 죽음이고 또 당시 사람들이 사후생(내세)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열린 죽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나의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는 죽음도 '열린 죽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닫힌 죽음'이었지만 그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解冤된다는 '열린 죽음'으로 전환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죽음은 '열린 죽음'이다.²⁾ 열림과 닫힘이 순환하는 열린 죽음은 현세의 삶이 다해도 안돈 된 내세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열린 죽음'은 '미래가 있는 또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다. 죽음이 '미래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죽음'을 긍정적인 순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현대에서는 어색한 일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죽음이든, 정상적인 죽음이든 우리 모두는 죽음을 원치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死後生'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종교학자³⁾들을 보면, 죽음이 '미래

2) '죽음을 바란다'는 말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정말 죽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행하고 비정상적인 죽음보다, 편안하고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는 의미이다.

3) 최준식은 사후생을 연구한 결과물을 출간하면서 '죽음의 미래'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는 죽음이 또 하나의 세계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준식, 『죽음의 미래』, 소나무, 2012, 6~278쪽.

가 있는 새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에 ‘닫힌 죽음’이 있고 ‘열린 죽음’이 있다거나, 죽음이 ‘미래가 있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적어도 철학적 논리에서는 이러한 가설은 모순이다.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 죽음에 ‘닫힌 죽음’이 있고, ‘열린 죽음’이 있다고 다시 살을 붙이는 것은 카테고리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적 논리나, 물리적 이해, 자연과학적 이해 차원에서는 모순될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죽음’의 성격은, 종교적, 형이상학적, 문학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통해 물리적, 자연과학적 끝을 봄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삶의 끝자락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과 ‘희망’, ‘치유’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다.

나말여초 전기소설에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지혜, 정신적 철학이 나타난다. 이들 작품에서 주인공의 죽음은 단순히 생을 마감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운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인물의 삶을 지배하는 세계의 부당함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또 인물의 죽음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있고, 주인공의 가치관이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전기소설의 죽음에는 ‘미래가 있는 또 하나의 삶’이 안겨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초기 전기소설에서 한 인물의 ‘죽음’이 나타나는 부분은, 서사의 분량과 상관없이 그 죽음은 인물의 전후 삶을 구분하는 서사의 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죽음은 서사의 종결이 아니고 새로운 인물 서사의 시작이 된다.⁴⁾ 주인공의 새로운 삶과 정신적 가치가 제시되면서 새로운 인물과 함께 새로운 삶을 공유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4) 주인공의 죽음이 문학 작품의 서사전개 상으로는 종결 부분에 해당되지만, 그 죽음이 주인공의 삶의 역사에서는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래서 독자들도 서사의 종결 부분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죽음을, 그 인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은 내세의 삶보다 현세의 삶을 더 중요시 한다.⁵⁾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 왜 굳이 전기소설 속에서는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또 하나의 삶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삶과 죽음을 단절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한 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가령, 魄이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魂은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이 허무하게 끝난다.⁶⁾ 그래서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소설에서는 현실의 삶과 소통할 수 있는 사후 세계를 설정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다. 그 허무의 극복은 주인공의 죽음이 일회적 삶의 종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미래가 있는 또 하나의 삶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도 만든다. 운명과 세계의 부당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몇몇 초기 전기소설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Ⅲ. <김현감호>에 나타난 죽음과 새로운 미래의 삶

먼저 초기 전기소설로 간주되는 <金現感虎>를 통해 주인공의 죽음이 ‘미래가 있는 새로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익히 알고 있듯이 <金現感虎>는 일연의 『三國遺事』 卷第五 感通

-
- 5) 최준식, 「한국인의 죽음관-내세관의 형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원형연구사업단 편, 『동아시아의 생사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19쪽.
6) 최준식, 「한국인의 죽음관-내세관의 형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원형연구사업단 편, 『동아시아의 생사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21쪽을 참조하여 필자가 부분 가필하였다.

第七에 수록된 10편 중 8번째에 들어 있는 작품이다. 연구 초기에는 설화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임형택은 이 작품이 동양문학의 일반 범주에 비추어 그 양식이 傳奇類에 속한다⁷⁾고 하면서 이 작품을 나말여초의 전기문학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낭만적·상징적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구체성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고 하고, 이 작품은 신라시대 신분간의 대립 갈등이 격화된 시대가 창출한 고귀한 희생정신의 여성 형상을 드러낸 작품⁸⁾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초기 전기소설을 이해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고, 일견 설득력이 있다. 설화 속 인물이나 요소들을 상징적 기호로 해석할 때 큰 무리 없는 해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현감호>의 인물이나 요소들을 상징적 기호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서사 맥락으로 독해하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虎女의 죽음과 그 의미에 관심을 두게 되면, 虎女의 죽음과 그 희생정신에 배어 있는 재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김현감호>는 분명 ‘낭만’, ‘상징’, ‘희생’이 주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런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하고 연결 짓는가에 따라서 서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이해를 위해 이 작품의 전문을 요약하고, 일연이 함께 제시하고 있는 <신도징>의 내용도 참고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A] <김현감호> 서사 단락

- 1. 신라 元聖王 때 郎君 金現이 興輪寺에서 탑돌이를 하다.
- 2. 한 처녀도 김현과 같이 탑돌이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움직여 눈을 주고, 김현이 그 처녀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정을 통하다.

7) 임형택, 『羅末麗初 傳奇文學』,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99, 11쪽.

8) 임형택은 이 작품에서, 天唱을 임금의 명령으로, 호녀를 평민의 딸로, 김현을 화랑 세력으로, 호녀의 오빠들을 반체제 세력으로 설정하여 이 작품이 신라 골품제도하의 신분 갈등이 반영된 작품으로 보고 있다. 임형택, 상계논문, 16~17쪽.

- 3. 처녀가 돌아가려 할 때, 김현이 따라가고자 하여 처녀가 거절했으나 김현이 억지로 따라가다.
- 4. 한 초가에 들어가니 늙은 할미가 처녀에게 함께 온 이가 누구냐고 묻고, 처녀는 사실대로 말하다.
- 5. 늙은 할미가 비록 좋은 일이나,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하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어찌할 수 없다고 한 후, 처녀의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려우니 은밀한 곳에 숨기라고 하다.
- 6. 범 세 마리가 돌아와 사람 말을 하면서 집에서 비린내가 난다며, 요깃거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니, 늙은 할미와 처녀가 꾸짖다.
- 7. 이 때 하늘에서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 악을 징계하겠노라.”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다.
- 8. 세 짐승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 근심하니, 처녀가 “세 분 오빠들이 멀리 피해가셔서 스스로를 징계하신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하니, 모두 기뻐하며 달아나다.
- 9. 처녀가 김현에게, 김현과 자기가 類는 다르지만 중한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세 오빠의 악은 하늘이 미워하니 자기 집안의 재앙을 자신이 감당하려 하고, 다만, 보통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남편 김현의 칼날에 죽어 은덕을 갚겠다고 하다.
- 10. 虎女가 내일 자신이 市街에 들어가 사람을 심히 해하면, 나라 사람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어 임금이 높은 벼슬로써 사람을 모집하여 자신을 잡게 할 것이니 그 때 김현이 겁내지 말고 자신을 쫓아와 성의 북쪽 숲속까지 오면 자신이 기다리겠다고 하다.
- 11. 김현은 사람이 다른 類와 사귀는 떳떳한 일이 아니지만, 이미 잘 지냈으니 진실로 하늘이 준 다행함인데, 어찌 배필의 죽음을 팔아 세상의 벼슬을 바라겠느냐고 하다.
- 12. 호녀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며, 자신의 소원이고, 김현에게는 경사이며, 자신의 일족에게는 복이고,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기에, 자신이 한 번 죽어 다섯 가지의 이로움을 얻는다고 하다.
- 13. 호녀가 자신을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講하여 좋은 과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면 김현의 은혜가 이보다 클 수 없겠다고 하다.
- 14. 김현과 호녀가 서로 울면서 작별하고, 다음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안에 들어와 사람을 해함이 너무 심하니 감히 당해내지 못하자, 원성왕이 명을 내려 범

을 잡는 사람에게 2급의 벼슬을 주겠다고 하니, 김현이 대궐로 나가 자신이 범을 잡겠다고 하자 왕은 벼슬부터 주고 김현을 격려하다.

- 15. 김현이 칼을 쥐고 숲 속으로 들어가자 범이 낭자로 변하여 반가이 웃으면서, “어젯밤 낭군이 저와 마음 깊이 정을 맺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입은 사람들은 전부 興輪寺의醬을 바르고 그 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내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을 마치고 김현이 찬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곧 범이었다.
- 16. 김현이 숲에서 나와 자신이 방금 범을 잡았다고 하고, 그 사유는 숨긴 채 말하지 않았으며, 다만 범이 시킨 대로 상처를 치료했더니 다 나왔다.
- 17. 김현은 벼슬을 하자 西川 가에 절을 짓고 虎願寺라 이름하고, 항상 梵網經을 강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 범이 제 몸을 죽여 자기를 성공하게 한 은혜에 보답하다.
- 18. 김현이 죽을 때,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것을 붓으로 적어 그 글 이름을 <論虎林>이라 하여 세상에 알게 하다.⁹⁾

위 예문은 虎女의 죽음과 그 죽음이 새롭게 생산해 내는 의미 맥락을 짚어보기 위해 <김현감호>의 순차 단락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한 것이다. 처음에는 김현과 처녀의 탑돌이와 이후 두 사람의 정을 통한 내용이, 갑자기 죽음의 서사로 바뀌게 된다. 그것은 바로 -7에서 제시되는 天唱이다. 처녀의 세 오빠들(범)이 생명을 많이 해친 것에 대해 하늘이 징치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 놈을 죽여 악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즉 생명을 함부로 죽여 없앤 세 오빠들에게 하늘이 그들 중 한 놈을 죽임으로써 벌을 가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호녀 오빠들의 살인에 대한 하늘의 보복이 드러난다.

그런데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처녀는 자신이 오빠들을 위해 대신 그 벌을 받겠다고 한다. 그러니 오빠들은 멀리 가서 스스로를 징계하고 있으라고 한다. 처녀의 이러한 행위는 오빠들도 살리고, 또 자신이

9) 일연, 『三國遺事』 卷第五, 感通 第七 <金現感虎>조. 본고의 번역은 박성봉·고경식 역, 『三國遺事』, 서문문화사, 1987, 355~357쪽을 참고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텍스트명과 번역본의 페이지만을 밝히기로 한다.

사랑하는 김현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처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그녀의 죽음은 자신의 가족과 김현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죽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더욱 특이한 것은,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신이 죽는 것은 동물인 자신과 혼인을 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김현에 대한 은덕을 갚는 길이라고 한다. 異物과 인간의 인연에 대한 운명적 사랑에 대한 보은이 처녀의 죽음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虎女의 죽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호녀가 남편인 김현의 칼날에 죽어 그 은덕을 갚고자 하기 때문이다. 호녀는 남편 김현에게 자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 보은을 하겠다고 하면서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을 한다. 호녀가 김현의 칼날에 죽으면서 異物과 인간의 비정상적인 인연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호녀는 비정상적인 인연을 부부간 살인으로 끊으면서, 동시에 남편에게 벼슬자리를 선사한다. 예문 -10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호녀가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시 많은 생명을 상하게 해야 하고, 그러한 자신을 죽인 김현은 벼슬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김현의 영전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호녀가 많은 생명을 해쳐야 하고 동시에 자신도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 된다. 특이하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본다면 호녀의 죽음이 그리 큰 의미를 가지거나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예문 -11과 -12를 통해서 호녀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새롭게 부각된다. 예문 -11에서 김현은 아내의 죽음을 담보로 세상의 벼슬을 바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호녀는 예문 -12와 같이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다. 가장 큰 이유는 天命이라고 하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죽음을 원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김현이 벼슬자리를 얻는 경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자신이 대신 죽어서 다른 형제들을 살릴 수 있으므로 일족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는 사람을 많이 해친 자신이 죽으면 나라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녀는 자신이 김현의 출세를 위해 나라 사람들을 해치고, 다시 자신이 김현의 손에 죽으면 나라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天上的 근거, 現實的 福樂의 근거, 個人的 근거라고 하는 세 가지 층위의 근거 위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반박할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탄탄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짙짙한 뒷맛은, 예문 -15에서 모두 해소된다.

모든 일들은 호녀가 예상한 대로 -14에서 실행된다. 그리고 예문 -15에서 호녀는 자신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흥륜사의 장을 바르고, 그 절의 소리를 들으면 모두 나올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의 상처가 나았다. 호녀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이 해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김현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죽는다. 이를 통해서 이전에 호녀가 김현의 출세를 위해 나라 사람들에게 가하였던 위해가 그 치료까지 염두에 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김현은 벼슬을 하게 되고, 예문 -13에서 호녀가 바라던 대로 서천 가에 虎願寺라는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며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호녀가 제 몸을 죽여 김현 자신을 성공하게 한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기이함을 <論虎林>이라는 글을 써서 세상에 전하게 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호녀가 죽음을 선택하고 또 실제로 죽음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차적으로 자신이 세 오빠들을 위해 대신 죽기로 결심하면서 오빠들도 살리고, 그 오빠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김현도 살린다. 호녀라고 하는 主體의 죽음이 세 오빠와 김현이라고 하는 他者들을 살린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호녀가 죽음을 선택한 것에는 다른 인물들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호녀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異物과 인간의 혼인이라는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인연을 끊는다. 동시에 자신과 비정상적인 인연을 맺어준 남편에게 보은하기 위해 나라 사람들을 해치고 자신이 죽는 두 번의 죽음 의식을 치른다. 그 결과 남편 김현은 벼슬을 얻어 안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호녀가 죽는 것이 삶을 '닫는' 것에 해당된다면, 그 죽음을 통해 남편 김현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죽음은 곧 '열림'의 죽음인 것이다.

이와 같이 <김현감호>에는 많은 이야기 편린을 엮어서 불교에 귀의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김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반과 중반부에 나타나는 이물의 악행과 이물에 의한 인간 살해 위기, 그러한 악행을 일삼은 이물에 대한 초월계의 징치와 같은 어두운 이미지를 모두 걷어 내고, 마지막에는 佛道 속에서 安寧하게 살아간 김현의 새로운 삶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호녀의 죽음은 형식상으로는 일회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의 물리적인 죽음은 삶의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 김현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삶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또 호녀가 죽으면서 김현에게 佛道에 대한 願望을 드러내었고, 이것이 김현에 의해 모두 실현된 것 또한 그녀의 죽음이 일회적 물리적 삶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도에의 귀의라는 새로운 고차원적 삶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호녀의 죽음이 이러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호녀와 김현 두 사람 사이에 생성된 信義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김현감호>의 종결 이후 곧바로 제시되는 <申屠澄>과 대비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논의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신도징>의 서사 단락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B]. <신도징> 서사 단락

- 1. 申屠澄이 野人으로서 당의 漢州什防縣尉에 임명되어 眞符縣의 동쪽 10리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눈보라와 심한 추위를 만나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 2. 마침 길 옆에 초가가 있어 그곳으로 가니, 늙은 부모와 한 처녀가 화룻가에 들

- 러앉아 있었는데, 처녀의 나이는 십 사오 세 쯤 되어 보였고, 입성은 남루하였으나 매우 아름다웠다.
- 3. 그 부모는 신도징이 온 것을 보고, 앞으로 와서 불을 쪼이라고 하여 신도징이 한참 앉아 있으니, 날은 이미 저물고 눈보라도 그치지 않아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하자 처녀의 부모들이 허락하다.
 - 4. 신도징이 방에 들어 침구를 풀고, 처녀는 손님이 유숙함을 보자 얼굴을 씻고 곱게 단장하고 장막으로 나오는데, 그 태도가 처음 볼 때보다 나오니, 신도징이 처녀와 혼인을 하고 싶다고 그 부모에게 청하자 그 부모가 허락하다.
 - 5. 신도징이 사위의 예를 행하고, 타고 온 말에 여자를 태워 떠나 임지에 도착해 보니, 봉록이 너무 적었다.
 - 6. 아내가 힘써 집안을 돌보아 매우 즐거웠으며, 임기가 끝난 후 돌아가려 할 때에 1남 1녀를 두었고, 두 아이가 총명하고 슬기로워 신도징은 아내를 더욱 공경하고 아내에게 주는 시를 짓다.¹⁰⁾
 - 7. 아내가 종일 이 시를 읊으며 잠잠히 화답할 듯 하였으나 입 밖에 내지 않다가, 신도징이 벼슬을 그만두고 가족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려 하자 아내가 문득 슬퍼하며 지난 번 시에 화답하는 시를 짓다.¹¹⁾
 - 8. 그 후 함께 아내의 집에 가보니 사람들은 없고, 아내는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 하루 종일 울다가, 벽 모퉁이에 있는 호피를 보고, '이 물건이 아직도 여기에 있는 것을 몰랐구나'하며 그것을 뒤집어 쓰니 범으로 변하여 문을 박차고 나가다.
 - 9. 신도징이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가 간 곳을 찾아 산림을 바라보며 크게 울었으나 간 곳을 끝내 알지 못했다.¹²⁾

위 예문은 <김현감호>와 대비하기 위해 일연이 <김현감호> 종결 부분 이후에 곧바로 제시하고 있는 <신도징>이야기이다. 일연이 『태평광기』에 있는 <신도징> 이야기를 소개하여 ‘호녀와 김현’, ‘호녀와 신도징’의 태도를 대비시킨 것을 보면 이 작품은信的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10) 그 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벼슬길에 나아가니 梅福에게 면목없고 / 3년이 지나니 孟光에게 부끄럽구나. / 이 정을 내 어디에 비유할까 / 냇물 위에 원앙새는 떠 있는데.

11) 아내의 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琴瑟의 정이 비록 중하나 / 山林에 뜻이 스스로 깊다. / 시절이 변할까 늘 근심하며 / 백년해로 저버릴까 걱정하누나.

12) 『三國遺事』, <金現感虎>, 357~359쪽.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신도징> 이야기가 <김현감호>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남녀 주인공 사이에 형성된 信과 報恩, 죽음까지 감수하는 犧牲의 유무다. <김현감호>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신도징>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에는 불도에 근거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나 철학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도징> 속 신도징과 호녀의 삶의 방향은 단선적이며 즐거움만 쫓는 감각적인 성향이 강하다. 외형적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적 삶은 있으나 두 남녀의 진정한 사랑, 인연, 운명, 信에 근거한 새로운 삶의 방향 제시는 없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다가 제 갈 길로 가는 비극적 삶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김현감호>는 信에 근거한 김현과 호녀의 진정한 사랑과 인연, 운명의 수용과 극복을 통한 새로운 삶의 방향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불도에의 귀의라고 하는 고차원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으로 제시되고 있다.

IV. <최치원>에 나타난 ‘단힌 죽음’과 解冤, 그리고 ‘열린 죽음’

일반적으로 傳奇는 사대부 문인지식인층의 꿈과 願望을 반영한 양식¹³⁾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치원> 역시 전기소설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 시대 문인의 고뇌를 그린 내용인데, 남녀상열을 주제로 하여 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소외감, 고독감 등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¹⁴⁾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인공의 현실에 대한 소외감이나 고독감은 두 여귀를 만나면서부터 해소되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실현한 후 현실을 초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윤재민, 「傳奇小說의 인물 성격」, 『민족문화연구』 28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64쪽.

14) 임형택, 상계논문, 19쪽.

특이한 것은 이 작품이 사대부 문인지식의 꿈과 願望을 남녀상열과 현실에 대한 소외감, 고독감을 드러내면서, 그 방식의 하나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수법을 가미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실의 인물인 최치원과 두 鬼女의 소통을 통해 인간의 죽음이 삶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삶의 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사후생의 주체인 쌍녀분의 두 귀녀는 최치원이 자신들이 찾던 남성상임을 말하게 되고, 오랫동안 무덤 속에서 품었던 자신들의 꿈을 최치원을 통해 일시적이거나 이루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여귀의 주체적인 삶이 드러난다.

<최치원>에는 각기 서로의 짝을 기다리는 남녀 주인공이 등장한다. 최치원이 雲雨를 즐길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다면,¹⁵⁾ 두 여귀는 자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知音을 기다리고 있다.¹⁶⁾ 이러한 두 남녀의 만남은 雙女墳이라는 무덤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무덤은 사람의 생물학적인 삶이 다한 후 그 마지막 흔적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다. 고대사회부터 무덤은 단순히 제의를 위해 만들어진 상징 개념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주거와 마찬가지로 死靈들이 실제 살고 있는 장소로 여겼다.¹⁷⁾ 인간의 현실적인 삶 못지않게 死後生을 믿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사후생의 인정과 강조는 곧 현세의 삶을 강조하고 더욱 절실하게 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생과 현세의 삶이 가지는 이러한 관계성은 건국신화의 주인공들

15) 최치원이 招賢館의 쌍녀분 석문에 쓴 시의 한 부분을 보면, 그는 ‘고운 그대들 그윽한 꿈에서 만날 수 있다면, …… 孤館에서 雲雨를 즐긴다면 / 낙천신을 이어 부르리’라고 하고 있다. 김현양 외, 『譯註 殊異傳 逸文』, <최치원>, 도서출판 박이정, 1996, 41~42쪽. 이하에서는 작품명과 자료집의 페이지만을 밝히기로 한다.

16) 쌍녀분의 두 귀녀 중 하나인, 팔낭자의 첫 시에 보면, ‘몹시 부끄럽게도 詩의 글귀가 제 마음 알아주시나’라는 구절이 나온다. <최치원>, 43쪽 참조. 그리고 서사가 진행될수록 이 두 귀녀는 자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남자 知己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박선경, 「한국인의 사후 세계관 - 미추왕 설화 김유신 설화 비형량 설화를 중심으로-」, 김열규 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 현실사, 2001, 166쪽.

이 삶과 죽음을 순환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¹⁸⁾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의 육체적인 유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의 삶에 대한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 사후생이라고 보면 삶과 죽음의 연속성과 순환성이 얼마간 이해가 갈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현세의 삶과 사후생을 연결하는 매개 고리가 바로 ‘무덤’이라는 제의적 상징 장치이다. 이 무덤은 死靈이 안식처이면서 그 사령들이 서로 오가는 집과 같은 곳이고, 현실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곳이다. 무덤이 가진 이러한 상징적이고도 願望的, 소통적 성격을 담고 있는 설화가 바로 <미추왕 설화>와 <김유신 설화>이다.¹⁹⁾

<미추왕 설화>나 <김유신 설화>에 나타나는 무덤과 마찬가지로, <최치원>의 무덤도 두 여귀가 안식하고 있는 거처이며, 현실 세계와 소통하는 장소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최치원>에서 왜 무덤을 통해 사후생을 드러내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두 귀녀가 자신의 뜻에 위배되는 배필을 정한 것에 대해 울분을 가지고 있다가 夭折한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이해를 위해 해당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최치원이 두 낭자들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느 집안의 사람이었냐고 묻다.
- 2. 두 낭자는, 자신들은 율수현 張氏의 두 딸인데, 아버지가 팔낭자는 소금 장수와 정혼하고, 구낭자는 차 장사에게 혼인을 허락하다.
- 3. 두 낭자가 매 번 남편감을 바꿔달라고 하고 마음에 차지 않았다가 울적한 마음이 맺혀 풀기 어렵게 되고 급기야 요절하게 되다.
- 4. 두 낭자는 최치원에게 자신들은 어진 사람 만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다.²⁰⁾

위 예문은 두 낭자가 자신들이 왜 요절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

18) 나희라,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2008, 68쪽.

19) 박선경은 <미추왕 설화>와 <김유신 설화>에 등장하는 무덤을 오가는 인물들과 현실 세계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통해 사후생의 의미를 밝힌바 있다. 박선경, 상계논문, 162~169쪽.

20) <최치원>, 46~47쪽.

분이다. 이 부분 전까지 최치원과 두 여귀는 이승과 저승의 생사를 달리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최치원이 쌍녀분에 作詩한 것을 기화로 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그러한 소통이 무르익었을 즈음에, 위 예문처럼, 최치원이 두 남자의 거주와 친족을 묻자 두 남자는 자신들의 현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한다.

예문의 내용을 보면, 아름답고 똑똑한 두 처녀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원치 않는 남성과 혼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두 처녀는 부친에게 혼사 약속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다가 그 울직한 마음이 맺혀 요절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서두에 나타나는 두 여귀의 죽음은 ‘단힌 죽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들이 최치원을 만나면서부터 서서히 그녀들의 죽음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다. 두 남자가 간절히 바란 것은 자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남자의 현실적 바람이 해소되지 않고 한이 되어 허무하게 죽게 되자, 작가는 두 여인의 이 허무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무덤을 통한 사후생을 설정했다고 판단된다. 쌍녀분이라는 상징적 사후세계를 설정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허무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두 여인은 죽음 후 사후생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그리고 사후생의 기다림과 인연의 힘으로, 세계의 횡포에 의해 굴절되었던 자신의 운명을 되돌려 놓는데 성공한다.

이런 점에서 두 여귀가 죽은 후 쌍녀분의 작시 행위를 통해 최치원과 같은 지기를 만나는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 죽음’의 성격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시를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음을 만나 서로 공감하는 것을 통해 두 여귀의 한은 해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여인이 죽은 이유가 밝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 남성인 최치원을 만난 이 시점이 두 여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전체 서사를 중심으로 보면, 이 부분은 서사의 중반 이후에서 결말부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지만, 여귀의 새로운 삶을 기점으로 본다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또한 팔낭자와 구낭자는 죽음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녀들이 죽고 나서야 그들이 꿈꾸었던 세계가 얼마나 크고 투명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죽음은 草露와 같이 사라지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사후생을 통해 연속되고 있다. 다만 恨이 맺혀 죽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편안하게 안식한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자신들과 소통할 만한 선비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최치원이 작시를 하자 곧바로 그 시에 공감하며 화답한다. 이 소통과 공감을 통해 두 여귀의 죽음은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열린 죽음’으로 질적 변환을 거친다.

이와 같이 두 여귀의 죽음이 질적 변환을 거치면서 최치원과 두 여귀는 생사를 달리하는 이질적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연분을 맺는다.²¹⁾ 그 연분은 최치원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두 여귀 또한 매우 적극적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남성과 연분을 맺은 두 여귀는 이제 모든 한이 해소된다. 두 여귀는 解冤을 한 후에는 현실계와 가까이 있던 사후 세계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 달이 지고 닭이 울자, 두 여귀는 최치원에게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이별이 길어지면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룻밤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제부터 천 년의 길고 긴 한을 품게 되었다고 하며 기약 없는 이별을 고한다.²²⁾ 이는 두 여귀가 사후생을 통해서나마 자신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남성을 만나 해원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타계인 저승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두 여귀의 사후생과 소통하였던 최치원은, 이들과 이별 후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보인다. 그는 과거를 통해 부귀영화를 꿈꾸었지만, 과거에 급제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읊은 시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사

21) <최치원>, 49쪽.

22) <최치원>, 51쪽.

그라들고 있다. 그는 “뜬 구름 같은 세상의 영화는 꿈 속의 꿈이니 / 하얀 구름 자욱한 곳에서 이 한 몸 좋이 깃들리라.”라고 하여 완전히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쌍녀분의 두 여귀가 사후생의 기다림과 최치원의 시에 대한 공감 및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었다면, 최치원은 그러한 사후 전재와의 기이한 만남을 통해 속세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몸과 정신의 자유를 찾게 된다.²³⁾

<최치원>에 나타난 이러한 ‘단힌 죽음’과 해원, 그리고 ‘열린 죽음’의 과정은, <首插石柵>의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수삼석남>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모의 반대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되자, 남주인공이 죽게 되고, 첩을 간절히 사랑한 최항이 죽어서 여인을 찾아가 만남을 지속한다. 이후 현실계의 산 사람과 사후의 죽은 사람이 별 장애 없이 사랑을 이어간다. 이러한 간절한 사랑으로 인해 죽은 최항이 다시 살아나 다시 현세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최치원>은 두 남자가 부모에 의해 원하지 않는 남성과 혼인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한이 맺혀 죽은 후 사후생을 통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최치원을 만나 인연을 맺어 새로운 삶을 살다가 해원을 하고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수삼석남>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부모의 반대 때문에 죽었던 남주인공 최항이, 첩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 사령이 되어 여인을 찾아 다시 인연을 맺고, 그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여 죽었던 최항이 다시 살아나 현실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²⁴⁾ <최

23) <최치원>의 최치원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이보다 후대에 창작되는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의 양생과 대조적이다. 두 작품 모두 기이, 환상, 죽음, 남녀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마지막에 보이는 주인공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최치원>의 최치원이 과거 급제 후에는 속세를 돌면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에 비해,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의 경우에는 지리산에 들어가 살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 뒷일을 아는 사람이 없는 ‘不知所終’으로 끝난다. <최치원>의 최치원이 ‘자유’를 누림에 비해, <만복사저포기>의 양생에게는 ‘회한’이 남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특정 시대를 바탕으로 할 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슷한 ‘죽음’을 다루면서도 개인적, 종교적, 국가 사회적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치원>이 ‘현실 불만족-사후생-사후 해원-他界 사후생’의 과정을 거친다면, <수삽석남>은 ‘현실 불만족 - 사후생 - 현실 만족’의 과정을 거친다.

V. 전기소설의 삶과 죽음, 세계에 대한 이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기소설에서는 현실의 삶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그 현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환상적인 奇異의 기법을 통해 사후생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소설에서는 인물의 죽음에 임하여 ‘현실의 삶’과 ‘사후생’의 연속과 순환을 강조하기 위해 ‘무덤’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례 외에 거창한 제의는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기소설의 삶과 죽음은 이원적이면서 일원적이고, 일원적이면서 이원적 세계의 특징을 가진다. 이는 사람의 靈肉의 자유로운 현신을 통해 현실과 사후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가의 전략이다. 이 전략에 의해 현실계의 산 사람과 사후의 죽은 사람의 자유로운 만남과 인연이라는 환상적 기이가 창출된다.

전기소설에서 삶과 사후에 대한 이러한 연속적이고도 순환적인 소통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바 있는 ‘현실의 삶’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현실의 삶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현실의 불만족’, 즉 현실 세계의 결핍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는 현실 세계의 부당한 횡포나 억압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후생에서는 어떻게 이 현실의 삶을 강조하고 시정하는가? 아주 쉽게는 ‘현실의 결핍’을 ‘사후 충족’으로 바꾸어서, 주인공이 현실에

24)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새로운 고사성어로 재창조되었다. 이는 죽음이 두 남녀 주인공의 새로운 삶을 제시하였고, 그 간절한 마음에 정서적으로 공감한 독자들에게 의해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고사성어로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서 이루려고 한 바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후에 충족되어야 할 꿈이나 이상’이 ‘현실에서 충족되어야 할 꿈이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이다. 그래서 전기소설에서는 현실의 삶 못지않게 사후의 삶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이 또한 궁극적으로는 결핍된 현실을 충족으로 바꾸거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고도의 트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일까? 전기소설에서는 비일상적, 비현실적, 환상적, 기이한 일들이 곳곳에 퍼져 있어도 독자에게 전달되는 의미나 이미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비일상적, 비현실적, 환상적, 기이함이 향하는 좌표가 ‘불만족스런 현실’, ‘현실의 개선’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기소설의奇異나 幻想을 사실적 기이와 환상, 현실적 기이와 환상, 합리적 기이와 환상으로 치환하여 독해해도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기이와 환상이 결국은 ‘사실, 현실, 합리’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VI. 결 론

‘죽음’이라는 물리적 현상은 하나이지만, 이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시대마다, 또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종교적 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 글은 초기 전기소설인 <김현감호>와 <최치원>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작품 속 인물들의 인연, 운명, 세계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다만 당시의 거창한 종교적 배경이나 사회적 관습, 국가적 문제 등을 특별히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대신 서사 문면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편린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작가와 인물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김현감호>에서는 주체의 죽음이 타자를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죽음’, ‘열린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호녀의 죽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낭만적 죽음’, ‘희생의 죽음’으로 독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호녀가 내세우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나 작가가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 철학적 주제가 너무나 무겁다. 호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천상적, 현실적, 개인적 층위의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근거에 의해 호녀는 자신이 죽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김현과 세 오빠들을 살린다. 이런 점에서 호녀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죽음'이다.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죽음은 '열린 죽음'이다. 그 죽음은 김현에 대한 호녀의 보은으로 촉발된 죽음이었고, 호녀의 죽음 후 김현의 보은이라는信的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남녀의 보은과 信的 과정을 통해 두 인물은 '佛道에의 귀의'라고 하는 고차원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치원>에서는 '쌍녀분'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매개로 하여 팔낭자와 구낭자가 현실에서 꿈꾸었던 세계가 얼마나 크고 투명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쌍녀분' 속 두 여귀는 현생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죽은 인물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죽음은 '단힌 죽음'이 된다. 그런데 자신들의 무덤에 作詩를 하는 최치원이 자신들이 꿈꾸었던 지음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후에 인연을 맺은 후에는 그 죽음의 성격이 서서히 바뀌게 된다. 자신들이 현생에서 꿈꾸었던 이상을 사후생을 통해 실현하여 解冤을 한 결과 '열린 죽음'이라는 질적 변환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전기소설에서는 '죽음'이나 '사후'의 이야기가 기이의 환상적 수법을 통해 강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이 현실적 삶의 소중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요 과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비교적 종교적 색채가 약한 <최치원>의 경우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성의 경조는 보다 후대에 양산되는 <만복사저포기>를 비롯한 전기소설에서도 비중 있게 드러난다.

<참고문헌>

- 김열규, 「현대적 상황의 죽음 및 그 전통과의 연계」, 김열규 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 현실사, 2001.
- 김현양 외, 『譯註 殊異傳 逸文』, <최치원>, 도서출판 박이정, 1996.
- 나희라,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2008.
- 박선경, 「한국인의 사후 세계관 - 미추왕 설화 김유신 설화 비형랑 설화를 중심으로-」, 김열규 외, 『한국인의 죽음과 삶』, 철학과 현실사, 2001.
- 박성봉·고경식 역, 『三國遺事』, 서문문화사, 1987.
- 윤재민, 「傳奇小說의 인물 성격」, 『민족문화연구』 28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 일연, 『三國遺事』 卷第五, 感通 第七 <金現感虎>.
- 임형택, 「羅末麗初 傳奇文學」,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99.
- 최준식, 『죽음의 미래』, 소나무, 2012.
- 최준식, 「한국인의 죽음관-내세관의 형성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원형연구사업단 편, 『동아시아의 생사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Abstract

Fate, Destiny, and the World in Death of Novels - focused on <Kimhyeon Gam Ho> and <Choichiwon> / Kim, Yong ki

This study dealt with death of novels in the relations with fate, destiny, and the world. The meaning of death was examined on the basis of the latter part of Silla and the early part of Korea's novels, <Kimhyeon Gam Ho> and <Choichiwon>. For prerequisite of this, it is suggested that death of novels could make a connection with 'the life of future'. The main character's death saved the other and it suggest his new way of life. The main character's death in novels can be examined within the context of 'the open death' in this regard.

In <Kimhyeon Gam Ho>, the reason about Honyeo's death are shown by three reasons of heavenly, realistic, and personal horizon. Honyeo could save hence her beloved Kimhyeon and three brothers. In this sense, her death is 'the death of new life' that is 'the open death' can save other lives.

In <Choichiwon> two female ghosts of 'Ssangnyeoboon' were wrongly killed without realization of their ideal in the lifetime. In this sense, their death can be 'the closed death'. However, their death changed into 'the open death' as a result of Choichiwon's special bond that he wrote poem on their graves and made their wish realized.

These discussions show the point that the story of 'death' or 'after death' is highlighted by the fantastic way in novels but the ultimate purpose of story is the device or process to reveal the preciousness of realistic life.

Key words: novels, <Kimhyeon Gam Ho>, <Choichiwon>, death, realization of one's ideal.